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한 아기의 이름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의 이름을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1장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혹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실현해야 하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아주 흔했던 이 ‘예수’라는 이름 뒤에 하나의 이름을 더 줍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멀리서 바라보시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아기의 이름 ‘예수’는 이 아이가 일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임마누엘’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건 바로 뒤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아기를 찾아와 경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오면서 그 아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왕’이라고 불렀던 호칭 안에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이시라는 것이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고백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심을 마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2천 년 전에 마굿간에 태어나신 그 아기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고백하고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생수의 강물과 같은 교회



김성진 담임목사

본문의 배경

본문은 이스라엘(남 유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 2세,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2대 왕)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 흘러나온 물이 큰 강물이 되어 흐르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강물이 닿아서 흐르는 모든 곳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

첫 번째 단락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이루는 환상입니다(1~5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던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천사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터로 갑니다. 그런데 성전의 동쪽에 있는 성전 문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2절은 이 모습을 밖에서 바라볼 때의 묘사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오른쪽은 남쪽의 유대광야 쪽입니다. 성전에서 흐른 물이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의 유대광야로 꺾여 가면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환상과 동일한 표현이 ‘회복’을 이야기하는 요엘서에 나타납니다. “그 날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와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씻김 골짜기에 대리라”(욥3:18).

그런데 이 환상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사2:3).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가는 곳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겔 47:1-12)

천 척을 측량함

이후 천사는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줄자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동쪽 문부터 천 척(약 500m)을 측량해서 에스겔을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는 그곳에서 강을 건너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발목까지 물이 옵니다. 거기서부터 또 천 척을 잴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거기에 세우고 다시 건너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물이 무릎까지 옵니다. 거기서 또 천 척을 측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옵니다. 거기서 또 천 척을 재니, 이제 목까지 차올라서 걸어서는 갈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 천사가 이끄는 환상 중에 바라본 성전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가는 곳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큰 강을 이루는 환상,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하여 결국은 큰 물줄기를 만들어 내는 하나님의 역사

강물이 죽음의 바다에 흘러들어가 생명의 바다 되게 하는 환상처럼 교회는 죽은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켜야

에스겔의 환상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며 계시록에 묘사된 천국의 모습 천국의 모습은 교회의 사명과 연결”

자연적으로는 천 척을 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물은 메마른 광야에 스며들어서 물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전 문지방에 흘러내리는 적은 양의 물과 같이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어 강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이 또 하나의 생수의 강을 만들어서 결국 큰 물줄기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살리는 생수의 강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강가로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메마른 광야, 한 그루의 나무도 없던 그곳에 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을 쫓 따라가 보니 ‘아라바’라는 작은 도시를 통과합니다. 그리

고 이 강물이 흘러간 곳이 바로 ‘바다’라고 번역된, 사해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바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강물과 사해의 만남을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물이...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구절의 ‘되살아난다’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라파’로서, 하나님이 죽음의 바다를 성전에서 흘러내린 이 생수로 고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 척박한 광야에 물길을 내고 강을 만들어 그 강물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영혼과 시대에 흘러들어가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

그런데 본문은 이 강이 흘러가서 회복된 모습을 에덴 동산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12절).

이 모습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4개의 강, 그 강가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척박했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곳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무의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 재료’라고 하는 단어 또한 ‘라파’입니다. 그 잎사귀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치료제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22:1-2)는 에스겔의 이 환상과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습은 이렇게 교회의 사명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각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나무를 얻게 되고, 가는 곳마다 그 나무의 잎사귀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맺음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교회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열린교회가 감당하고 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흘러내려 모든 세상을 적시고 생수의 강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고, 죽음의 땅을 살리는 땅으로 만들어내며,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되어 상처받고 절망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

목양사역위원회Q&A/최성기 목사님 인터뷰

말씀 가르침을 목양과 연결하다

Q. 목양센터는 2017년도에 교회의 섬김시스템을 센터체제로 구축하며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목양센터가 필요했던 교회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당시 장년교구는 교구 목회자들의 재량 하에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고유한 장점들을 갖고 있었지만, 교구마다의 차이들이 존재하였고 서로 간에 잘 소통하고 조율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목양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고 서로의 장점들이 융합되어 시너지가 생겨나도록 목양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는 공통된 목양 매뉴얼을 만들고 특별히 교역자와 각 교구 팀장들이 함께 구역장들의 구역모임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목양센터'라는 명칭을 '목양사역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목양센터의 역할과 함께 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을 새롭게 반영하여 목양사역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목양센터에서 행해 온 사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목양센터는 가장 먼저 담임목사님의 말씀사역과 구역모임의 목양적 연결을 돕고자 온 교회가 함께 누린 설교를 구역공과 주제로 선정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시기에 맞게 공동체의 필요에 부합하는 주제의 구역공과를 기획하고 교재로 출간하여 구역에서 함께 나누며 설교를 통해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까지 실시하였으나 코로나 이후로 실시되지 못한 '일꾼 수련회'를 내년에 다시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구내 팀장·구역장 리더십들이 담임목사님과 만나 목양의 고민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더하여 교회의 필수양육과정(새

가족반, 새신자반, 성장반 등)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을 증보·개정하고 기타 양육시스템 전반을 운영하는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Q. 구역공과는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구역·순모임에서 나누는 주제의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어떤 책으로 공부하느냐는 성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구역공과 선정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구역공과는 기본적으로 담임목사님 설교 시리즈들을 교재로 출간하여 심층적으로 적용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외부교재도 탄력적으로 곁들여질 것입니다. 이번에도 교구가 전면 개편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체들과 서로 사귀며 알아가는 교제에 방점을 두는 공과가 필요해서 새 공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전도서> 공과는 내년 봄 이후로 연기하고 대신 <복음 중심 삶>이라는 외부교재(관련기사7면)를 선정하여 온 교회가 복음을 주제로 하여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총 9주에 걸쳐 복음의 의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게 되는지를 매주 성경본문말씀의 묵상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Q. 이번에 새롭게 목양사역위원장이 되셨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존의 사역 방식과 달라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저는 이번에 황철호 장로님과 함께 목양사역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목양사역위원회는 황철호, 이동훈 두 분 장로님과 여섯 분의 부서 위원장님 외 부서원들이 함께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잘 해왔기에 계승해야 할 목양의 장



점들을 계승하고, 오늘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수정·보완하여야 할 부분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된 한 영혼이 초신자부터 받는 모든 양육훈련을 이수하게 될 경우에 맺어질 열매라 할 수 있는 구역장·순장으로 세워지기까지 양육과정의 전체 로드맵을 보다 명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Q. 목양사역위원회 안에서의 섬김 조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목양사역위원회 안에는 교회의 연간 목양사역을 기획하고 섬김이들을 훈련하는 '목양사역부'와 신앙훈련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섬기는 '목양교육부', 새가족과 일대일 양육을 담당하는 '새가족부', 시니어 세대의 사역을 돕는 '백향목부'와 상담사역을 지원하는 '상담사역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가정사역부'가 있어서 예비부부 양육부터 시작하여 자녀출산과 양육 외 각 연령대별로의 다양한 필요를 돕고 섬기는 고유한 사역들을 발굴하여 앞으로 담임목사님의 주요한 목회적 방향인 '가정'을 세우며 새롭게 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목양사역위원회 전체를 황철호 장로님과 제가 총괄하며, 가정사역부는 이동훈 장로님이 전적으로 지원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교회가 운영하는 열린심리상담연구소가 상담사역부와 연결되어 성도님들의 목양적 상담의 필요를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Q.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덧붙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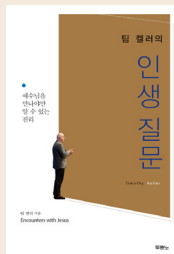
A.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여러 변화의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교회의 주요한 결정들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저와 목양사역위원회 섬김이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도서

팀 켈러의 인생질문

팀 켈러/두란노

요한복음을 통해 배우는 인생 질문과 예수의 대답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은 모든 사람이 한번쯤은 해 봤을 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을 통해 찾는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인생의 질문이 많은 이들을 만나셨고, 그때마다 개개인에게 맞는 헤안의 답을 주심으로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셨다. 회의론자였던 나다나엘과의 만남,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과 예수님의 만남들을 저자는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해석한다. 이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삶의 질문으로 가득 찬 이들의 마음을 시원케해 준다.

...기독교인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기독교의 진리, 듣고도 이해할 수 없어 마음 깊이 묻어 두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저자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설득력 있는 논거와 문학, 철학, 대중문화 등 저자가 가진 힘을 총동원하여 종교적 관점을 제시해 주는 책이기에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모두에게 유익한 책이다.(출판사 서평)

교회 소식



교회학교와 함께하는 온세대 아침예배

일시: 12월 7일(토) 오전 7시
장소: 본관3층 예배실

교역자 발령

사랑부: 정호석 목사
영아부: 김진하 전도사
유아부: 박주광 전도사
유치부: 이해선 전도사
유년부: 권세원 전도사
초등부: 곽승훈 전도사
소년부: 조일권 강도사
청소년부 1국: 이두호 강도사
청소년부 2국, 교회학교 부디렉터: 김민성 강도사
청소년부 3국: 김태영 목사
청소년부 부서역자: 김태훈 전도사·최현성 전도사
연구·찬양·청년새가족: 김다영 전도사
연구·목회지원: 최은광 목사
(임명일자: 12월 1일)

온가족 함께 교회 오는 날

일시: 12월 22일(주일) 2, 3, 4부 예배
(전도작정카드 작성 후 1층과 3층 로비에 있는 '온가족 교회오는날 함'을 통해 신청)

주요사역

1일, 8일(주일) 장년교구·청년부 총회
2일(월)~4일(수) 교역자수련회
7일(토) 신임제직면담/온세대 아침예배
8일(주일) 창립기념주일
15일(주일) 새가족환영축제
18일(수) 정기당회
21일(토) 성탄축하행사
22일(주일) 온가족교회오는 날/정기제직회
25일(수) 성탄절 예배(10시, 12시)
26일(목)~28일(토) 청년부 기도연주회
29일(주일) 공동의회
31일(화) 송구영신예배

새가족


▶▶ 장년		▶▶ 청년
김미란(73)	오윤정(79)	차혜민(03)
김정아(60)	최경아(67)	임채은(02)
한예인(90)	이윤남(77)	김선호(92)
유승숙(59)	오자경(66)	이재문(00)
주규영(88)	김기삼(73)	김은주(86)
최재련(93)	이종숙(77)	이소현(98)
양수진(73)		장성현(99)
정현진(87)		이수진(96)

교사초청집회 후기

천국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다가 왔냐고 물으실 때



김선희 고등부교사
jymom1125@hanmail.net

 철었던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했던 그 시절! 지금까지 30년 넘게 교회학교 학생들과 지내 온 세월을 이번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20살 나이에 중등부를 처음 맡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교회학교 교사로서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15년 넘게 택해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다른 학생들보다 예배 전 일찍 나오게 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이끄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으며 말씀 읽기를 위해 한 시간씩 일찍 나와 함께 공동체 성경읽기를 했습니다. 반 모든 학생이 나오면 그날과 한 주장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의기양양해서 살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마음의 어려움으로 일주일 힘없이 살아온 세월이 기억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을 위해 헌신하고 열정으로 목양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주는 학생들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밉기까지 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만으로 달려왔기에 섬김에 대한 대가를 따지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교사로서 저에게 새로운 회심을 주셨습니다. 목양은 나의 방식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이후 오히려 어떠한 테크닉이나 스킬보다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제일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후 맡은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의 최우선 자리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를 통해 또 한번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디후 1:1-11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의 강병호 목사님 강의는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티칭도 아니고 케어링도 아닌,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 복음을 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예배와 복음증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 한 영혼을 위한 몸부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 예배 한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그 예배에서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애써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회심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활보다 학생들이 더 우선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학생들을 찾아다니고 먹이며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보내주었던 그 선생님들의 사랑 덕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냐고 물으시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다 왔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맡은 학생이 회심의 자리를 언제든 지킬 수 있도록 손과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구원 받은 자로서 마땅히 또 다른 영혼을 위한 섬김! 복음에 목숨 거는 교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

*영아부예비학부모설명회 후기

돌쟁이 아가들의 독립 예배



정소정 장년5교구
kiwe0994@naver.com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전주에서 다니던 기존 교회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석하다가, 임신과 출산 후에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집 근처 교회인 열린교회에 작년 3월부터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기에겐 어렸을 때부터 예배 환경을 접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중, 작년 예비학부모설명회를 통해 돌 이후에 아기를 영아부 예배에 보내고 저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돌이 얼른 지나길 기다렸습니다. 우연히 설명회 광고를 보고 참석했는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아이의 첫 교회학교 부서 생활을 어떻게 할지 미리 보고 나니 더 신뢰가 생겨 그 이후에 '생애 첫 영아부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영아부 예배에 가게 되면 바로 아이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4주 동안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적응 후 분리하게 됩니다. 자모실에서 벗어나 4주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 눈높이에서 찬양과 율동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적응을 마치고 혼자 스스로 예배드리는 영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의 교회는 부모와 영아가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아부 예배에도 부모와 함께 드리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인 크리스천 자모도 이제 막 돌 지난 아이들이 혼자 예배가 가능해? 했지만, 가능했습니다!

매주 영아부 예배에 갈 때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입구에서부터 따뜻하게 환대하며 맞이해 주시는 모습

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안아주고 맞이하고 기도하며 섬겨주시니 아이들이 부모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예배실로 들어가고, 학부모도 믿고 편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는 심한 '엄마 껌딱지'여서 초반에는 매주 인사할 때마다 눈물 콧물 쏟았지만, 예배 전 놀이 활동 후 찬양 소리가 들리면 금방 울음을 멈추고 예배에 집중하며 참여한다는 게 감사하고 신기했습니다. 보통은 예배 전에 놀이활동을 하며 마음이 열리는데 저희 아이는 찬양과 율동이 시작되면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영아부 예배에 보내기 전부터 가정에서 영아부 찬양을 많이 들려줬는데 아마도 그 찬양이 익숙해서 반응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따로 예배드린 덕분인지 올해 3월부터 어린이 집을 다니는데 1주일 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 큰 도움

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아부 덕분에 저의 성장반 교육과 구역모임이 양질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둘째까지 출산해서 여전히 자모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자리가 어디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정돈된 마음을 다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자녀를 안고 기도하며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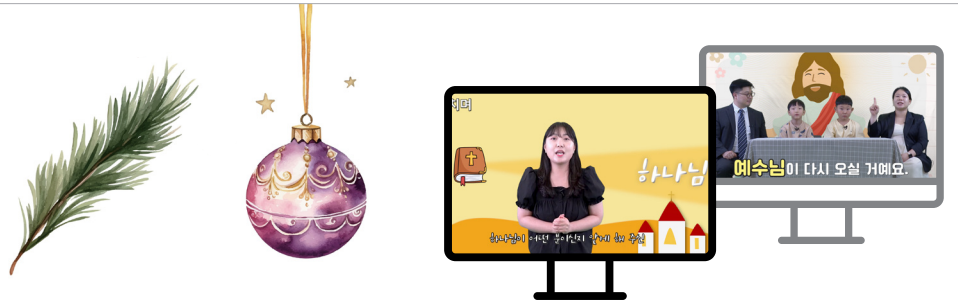
한 해 동안 영아부를 통해 아이들이 어린 만큼 더욱 건강과 여건을 위해서도 힘쓰고 그 부분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아이 건강과 위생에 더욱 신경 쓰고 토요일에는 무리하게 일정을 잡지 않고 다음날 예배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기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세빛교실에서 가정예배에 대해 배운 대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아이와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막막했는데 매주 보내주시는 영아부 편지와 공과교재를 보고, 매일 말씀 암송을 활용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와 영아부 공동체가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한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영아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며, 돌을 앞두고 있는 영아의 가정에게 영아부 예배와 섬김이들을 소개하고, 영아부 예배에 보내기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의 첫 교회학교 부서를 미리 만나고 아이의 신앙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등불학교 후기

기독교교리의 체계를 세워 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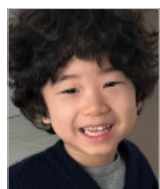


“지식이 없는 곳에서는 삶이 시든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말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이 지식과 진리에 기반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강조된 근대(modern)를 지나 정보가 넘치는 후-근대(Post-modern) 시대인 오늘날은, 지식이 부족한 시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지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는 진리마저 상대화되며, 절대적 진리가 사라졌다고 느끼게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 옳다고 여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성경의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 표현합니다.

실든 종든 교회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으나 지혜는 없는 시대입니다. 열린교회 교회학교는 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

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통해 여호와의 경외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아이들의 삶에 등불이 되어 그들의 삶을 시들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열린교회 교회학교는 내년부터 ‘지혜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등불학교에서는 그 기초로 기독교 진리와 개혁주의 교리를 중점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개혁주의 교리의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정체성을 갖추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부터 시작될 지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등불이요 등대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김민성 강도사, 교회학교 부디렉터)



★ 유치부 김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 통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강도사님과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퀴즈 푸는 시간도 재밌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 배운 것을 다시 묻는 질문이 제겐 아직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유년부 김라운

이번 등불교리교실은 기억에 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년부, 유치부 친구들이 영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3주 차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에 참여하며 등불교리교실이 조금 더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하며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고, 강아지와 고양이 영혼이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주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며, 교리를 쭉쭉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성육신이라는 말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등불교리교실 골든벨을 울려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교리 자료를 1주 차부터 7주 차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께서 주신 예상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영이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구원 등 교리를 재미있게 복습하며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등불교리교실에 참여하며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우선 친구들과 함께 퀴즈도 풀며 즐겁게 교리를 알아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맞춰도 재미있고 틀려도 기억에 잘 남아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려주신 계시, 특히 말씀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는 매일성경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배우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면 완전히 죄가 없는 완벽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대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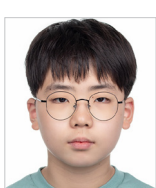


☁ 초등부 노연준

제가 교리교실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참여하는 동안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들었지만, 끝까지 극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교리교실을 마치고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1주 차 ‘성경책은 어떤 것인가요?’에서는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주 차 ‘하나님은 누구인가요?’에서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이며, 공유적 속성은 우리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주 차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에서는 우리는 죄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주 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에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친히 인성을 취하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5주 차 ‘구원이란 무엇일까요?’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화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6주 차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에서는 지역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며, 보편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연합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은혜를 받는 곳임을 배웠습니다. 7주 차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1주 차부터 7주 차까지 교리교실을 마치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교리교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제 마음을 고치며 살아가겠다고 느꼈습니다.



★ 소년부 박은찬

처음 교회에서 등불교리교실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귀찮겠다는 생각이 앞서 들었다. 안 그래도 피곤한 주말 아침에 등불교리교실 영상을 봐야 한다니, 썩 내키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귀찮고 별 생

각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1주 차 등불교리교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를 보았다.

그런데 등불교리교실 영상은 귀찮고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유익했다. 교리교실 1주 차 영상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회를 지킴껏 다니면서도 헛갈렸던 부분이었는데 전도사님께서 너무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 정말 좋았다.

특히 이 등불 교리교실 영상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보여주는 특별계시라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좋다’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잘 쓰지 않는 편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헛갈렸던 성경 말씀과 교리를 10분 안팎의 영상으로 쉽게 알 수 있으니, 정말 ‘좋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 다음주로 등불교리교실 2주 차 영상도 보게 되었다. 2주 차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였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설교 시간에도 들은 적이 있는 교리인데 이렇게 교리교실을 통해 머릿속에 한번 더 정리가 되니 교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이렇게 유익하고 성경 교리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영상이라니, 등불교리교실을 계속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히 들었다.

그렇게 1,2주 차 등불교리교실을 보고 나서 연이어 등불교리교실을 봤다. 영상 하나 하나를 볼 때마다 헛갈리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 교리들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단 하나의 영상도 빠짐 없이 등불 교리교실 영상 하나 하나가 다 너무나 유익하고 내용이 명료했다. 교리교실 영상 하나 보기를 귀찮아 하던 나였는데, 어느새 교리교실 7주 차 영상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교리교실 1주 차 도입부에서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다. 처음에는 그냥 귀찮은 마음을 가지고 본 교리교실 영상이었는데, 교리교실 1주 차에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쁘다.

머릿속에 성경 말씀과 교리가 잘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던 나였는데 이 교리교실이 올바르게 확실한 교리를 알려주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준 것 같아 만족스럽다. 7주 차로 끝난 등불교리교실이만, 이 교리교실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나에게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 ☆




목사안수 후기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며



최영광 청년2국 담당
ykyo5707@gmail.com

 지난 10월 15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직식 당일, 목사임직과 강도사인허를 받는 이들,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과 친지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이의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하게 하였고, 대학 시절에는 선교단체를 통해 훈련받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적 성공을 꿈꾸며 안정된 직장만을 바라보던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셨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순간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저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졸업을 앞두고서는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의 시간

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선교단체 간사님과 면담을 가졌는데, 간사님은 저의 고민을 들으시고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간사님의 한마디는 하나님이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 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였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저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부족한 모습들이 떠오르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며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날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0절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한 말씀을 통해 저의 시선을 점검하

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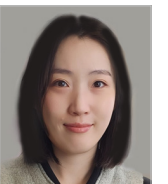
저는 저의 자격과 부족함을 보면서 스스로 잘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저를 깨우쳐 주셨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주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흥하게 하는 사역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안수의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안수의 시간 동안 나의 부족함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겸손함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흥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고 흥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저는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에만 매이지 않고, 저를 부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먼저 구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를 통해 저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흥하게 하고 높이는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

유아세례교육 후기

유아세례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해주실 하나님



백지은 장년4교구
yuiop9440@naver.com

 저는 올해 2월에 딸 쌍둥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지난 9월 예배 후 광고에 유아세례교육 내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아 설렸습니다. 사실 열린교회 유아세례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생각날 때마다 유아세례를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아세례교육 일정을 보니 그 일정부터 저희 가정에게는 난관이었습니다. 10월 3주간 토요일마다 교육이 있고 이 교육에 부모가 다 참석해야 하며 네 번째 주 토요일에 문답을 통과해야 11월에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을 해야 했고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기에 교육에 참여하는 것부터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교구 목사님께 저희 가정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육 담당자와 소통하고 안내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이런저런 저만의 걱정과 계획으로 가득했었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당부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거고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다음에 받게 하실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목사님의 안내를 기다렸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엄마인 저는 3주간 교육에 반드시 참여

해야 하고 남편은 목사님께서 한 번 따로 만나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교육받는 건 무리라고 생각되어 시댁 식구들께 도움을 요청했고 다들 토요일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다행히 잠깐 시간을 내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아이만 맡기고 한 아이는 데려가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받는 교육은 어수선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해 주신 목사님께서 명료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교육받는 시간이 참 행복했고 오랜만에 목사님의 가르침이 제 마음에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첫 날 유아세례의 의미에 대해 배우면서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은 언약신앙이며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것인데 언약은 가족 단위로 맺어지게 되고 따라서 유아세례는 언약 백성으로의 인을 치는 것이란 걸 배

우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육 후 마지막 문답 또한 교회의 배려로 저희 가정은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0개 정도 되는 문답 예상문제들을 외우면서 제 안에 교리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독 10월에 일이 바빠서 문답 외울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남편은, 문답 전 날 밤새 열심히 문답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문답 시간, 남편과 저는 걱정과 달리 차분히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해온 아빠를 보지 못했다고 남편을 칭찬해 주셔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유아세례를 위해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문답 후 작성한 신앙고백서를 읽어 나가는데 저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은 아이들의 유아세례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저희 아이들과 함께해주실 하나님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산 후 경건생활도 많이 무너지고 예배 자리에서도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어려워 은혜를 누리지 못한 시간들이 가득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감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

부부레벨업 후기

우리 부부의 레벨업이 시작되었다

 우리 부부도 어느 부부들처럼 다름으로 인해 겪는 갈등들이 있었지만 은혜로 잘 지내왔다. 소통이 잘 되었다고 느꼈던 연애 시기는 단지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의 핑크빛뿐이었을까. 교회 안에 살았음에도 나는 늘 빼그덕거렸다. 은혜로 덮고, 참을 인으로 덮고, 그저 덮기만 했지 진지하게 지식을 가지고 배우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갖지 못했다. 살기에 바빴고 한 번 자고 일어나면 갈등도 현실에 묻혀서 흘러보내곤 했다.

돌아보면 진짜 은혜였음은 변함이 없다. 힘든 시간만큼 은혜도, 간증도 많았다. 하지만 갱년기라는 놈(?)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면서 무지로 덮기만 했던 시간이 그저 잘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기임이 어색했지만, 성인인 아이들은 우리가 지나는 장년의 시간을 응원하며 적극적으로 가족모임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시기에 '부부 레벨업' 광고를 보았다. 한 번은 아주 깊이 숨을 고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다. 인생의 노을이 물드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 절묘한 타이밍에 부부레벨업이 시작된 게다.

남편은 워낙 말수가 적고 자기 세계 안에서 혼자 잘사는 사람이다. 이게 늘 나의 불만이고 답답함이었다. 아이들은 곧 집을 떠날 테고 지금도 바쁘다. 둘이 식탁 앞에 앉아서 얼굴을 마주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로 미래를 함께해야 하는데, 덮기만 했던 시간들이 나의 입에서 불만으로 튀어나오는 현실이 다가온 게다.

하지만 그 현실 부부의 골 깊은 고민도 주님은 그냥 보내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현실 속의 가장 깊은 고민이 무엇이든 그것까지도 아우르는 구원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더 많이 고민해야 했고 주님 앞에 대답을 드려야 하는 진지한 시간을 보냈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시간이 부부레벨업을 통해서 허



신현자 장년4교구
hephzi-bah@hanmail.net

락되었다. 참 신기했다.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인 남편을 향해 주셨던 마음이 이전보다 더 무르익게 하셨다. 은혜이다. 프로그램의 소제목부터 범상치 않다. '성경적 결혼 원리', '건강한 가정 세우기', '서로 다름을 이해하기', '성경적 부부 대화와 소통'이다. 내용을 다 풀어서 이곳에 적을 수는 없지만, 제목을 보아도 강의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지식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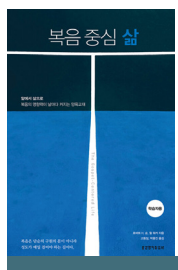
특히, 강의를 마치고 이루어지는 소그룹 모임이 참 좋았다. 열린 지체들이 얼마나 가정을 잘 세우고 싶은지의 열망이 그대로 묻어났다. 혼자 참석하신 아내 집사님들의 열정이 대단했다.

우리 조에는 부부가 우리만 있었다. 그 어색한 시간을 잘 참여하며 남편은 자신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를 위해 그 어색한 시간을 잘 감내하며 끝까지 4주를 함께한 것에 고마움이 컸다. 그게 변화이며 소감문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다. 말수가 적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가 나와 지금 이곳에서 함께 다름을 알아가고 소통의 피드백을 받으며 걷고 있지 않는가! 이미 이곳에 참여함으로 우리 부부의 레벨업은 시작되었다. 그 어색한 시간을 잘 참여하며 남편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갱년기를 이기지 못해 참여했습니다"라고 시작된 어색한 멘트가 4주 차에 이르면서 우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소그룹 모임이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주님께 참 감사하다! 방배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열린공동체에 붙어 있었던 시간들이 나를 빛는 기간이었다. 지금까지 은혜와 공화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열망하던 변화의 한 단계 성장도 이곳에서 맛보게 하셨다. 산책길에 남편은 말수가 많아졌다. 요즘 나는 인생의 어느 구간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는 날에 부부가 노을이 물드는 시간을 나란히 함께 보낸다는 건 축복이다. 그 대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귀한 초대로 섬김을 받게 된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

새공과 소개<복음 중심 삶>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문이 아닌 우리가 매일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ABC가 아니라 A에서 Z까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믿고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시작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관통하는 중심축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곧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되는 길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심 삶>은 이러한 복음의 깊은 본질과 능력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도록 도와줍니다. 9개의 장에 걸쳐 복음의 본질, 그것이 가져오는 내면의 변화,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제적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주어진 성경 본

문을 묵상하며 지체들과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아갈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복음으로 시작하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책하고 후회하며 복음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 중심의 삶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은혜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새로운 구역순안에서 날마다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

(목양사역위원회)

곰곰이 생각

내용이 없는 감사는 빈 편지와 같습니다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잘못의 고백도 내용이 있어야 하듯,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빠가 잘못했다.
됐니?



네?...
헉, 뭐?



감사의 고백도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애야!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한다는 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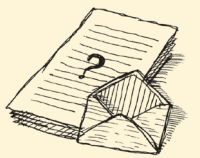


여러모로,
모든게 감사합니다.

잘못의 고백도,
감사의 고백도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의 감사는 빈 편지와 같습니다.

감사는 내용입니다.



11월 17일 주일 말씀과 시편 136편을 만나며...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간증문을 청탁받고 퇴근하여 오는 차 안에서 초등학교 어린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리숙하기 그지없는 모습의 어린 여학생이 주님을 모른 채 20여 년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에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또한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세 자녀의 엄마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40대 후반 가정의 아내로, 딸이요, 딸며느리로, 중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지만 제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간증문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마음먹어서 안 될 것이 없다는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 마음먹은 대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제게는 정답인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극히 이기적이고 남과 비교하며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압박관념에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냈었지만, 그에 합당한 결과들을 맞보았기에 그것이 정답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생활까지 제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술교사가 꿈이었던 저는, 임용고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높은 절벽에서 곤두박질쳐져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구나....를 처음으로 깨달으며 저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동생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처음으로 동생을 따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였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에게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벗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에서 맞보지 못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제가 먼저 주일을 기다리며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임용고시 시험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붙어도 주님의 뜻, 떨어져도 주님의 뜻이란 강한 확신과 자유함 속에 준비할 수 있었고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 2005년 10월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개척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았을 때 교회를 옮기게 되었기에 저는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해 깊이가 없었던 저에게는 어느새 어려움이 쌓여만 갔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시댁식구를 만나고 참고 순종해야 하는 시간으로 여겨졌고, 5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뒤로 한 채 셋째 임신 소식과 함께 저는 결단하고 두 아이와 함께 인근의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저 참고 순종하는 데 익숙했던 저에게 셋째를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용기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그렇게 시댁이 하는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 남편과의 관계도 매우 어려웠으며 외롭고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느낍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과정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지만, 주님께서는 긴 터널 저 멀리 켜져 있는 등불처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터널 끝에 한줄기 불빛으로 항상 저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 동생이 열린교회에 정착하여 다니고 있었고, 한 번씩 말씀사경회가 있으면 알려주어서 퇴근하면서 갈급한 마음에 열린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0여 년을 목동에서 살다가 이후 복직을 앞두고 안양으로 이사하면서 주변의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은 가운데 계속 안양에서 목동에 있는 교회로 8년 정도를 다니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서서히 에너지가 소진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도저히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지속해서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출근하기 전 홀로 식탁에 앉아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동생으로부터 열린교회에서 이번 말씀사경회에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뭔지 모르는 기대감에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답답했던 제 마음에 강하게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함께 듣기를 권하였고 남편에게도 주님께서 열린교회로 옮겨도 될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을 주셔서 세 아이와 함께 올 1월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새가족 교육과 20주의 성장반 과정을 마치고 얼마 전에 새로운 구역에 배정되어 구역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다 살피셔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의 열린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준경 이영춘 구용희 이동훈 박희준
- 휴직장로 김남근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한 김하림 이규희 김동기 손하람 최영광 김진산 김태영 정호석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김민성 이두호 조일권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찬 이순이
- 교육전도사 박승훈 권세원 이혜선 박주광 김태훈 최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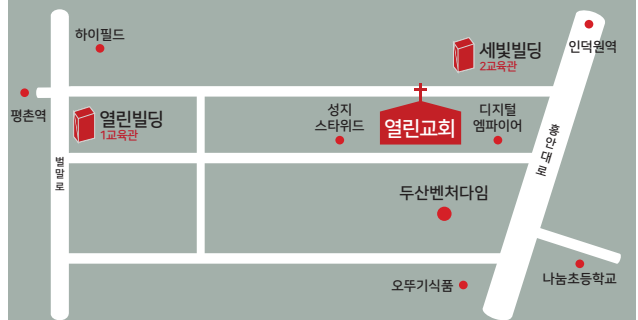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 A국: 2 units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정오 12시 (세빛빌딩 5층 중국어예배실) 中午 12点 (世光大厦 5楼 中文礼拜部)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오시면 됩니다